

안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배용자(루시아)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리 H-Mort 건너편,
(파비야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박지연 부동산
770-687-0750
Homewithjulia@gmail.com
박지연 살비아
Virtual Properties Realty
집찾는 마법사 YouTube f

TOP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Suwanee ORTHODONTICS
Elevate Your Smile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a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묵주, 책
금, 은, 주문제작
신발수선, 티-셔츠 프린팅
Suwanee Wal-mart 내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2113호 2021년 9월 1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인: 구동욱 미카엘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 (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 본당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hael Tong-uk Ku, S. J.
micku@kakao.com
- † 사목회장
성정창 폴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 9,23-26 >

성 가 입당: 283 봉헌: 211/216 성체: 172/170 파견: 287
제 1 독서 지혜서 3,1-9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서 로마서 8,31-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병 중에 계신 분들

- 김미영(인덕마리아)
- 김송옥(데레사)
-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 민병숙(라파엘라)
- 박덕자(빅토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평하 (요한)
- 유옥희(모니카)
- 이금숙(세실리아)
- 이수진(브렌다노)
- 조갑득(마리아)
- 조경희(글라라)
- 채중현(아오스딩)
- 최대일(프레드릭)
-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 구역분과 고영호 678-707-9993
- 성모회 이남수 770-310-4546
-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박순기 678-793-5881

- 레지오 마리아에 왕희숙 352-359-4283
- 성령기도회 오영숙 404-518-5881
- 울뜨레아 이경환 678-713-4650
- M.E. 손영덕 678-896-1837
- C.L.C. 이형주 404-409-1220

75.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과 자본, 대화와 협력 지향해야" 노사정 뜻 모아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해야

이 신부: 마리아, 피곤해 보이는구나!
 마리아: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요. 낮에 2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 사서업무를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커피숍에서 일하거든요.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단 일자리를 알아보면 단시간 일거리만 많아요. 그런데 걱정이예요. 그런 단기 일자리는 경력 쌓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수입도 너무 적어서요.

불안한 고용환경

가톨릭교회는 노동을 애덕 실천과 성화(聖化), 나아가 온전한 인간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침체합니다. 노동은 생계와 일자리 문제이며 노사간 분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경제지표들이 악화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달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127만 8000명을 기록하고 실업급여 신청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47.4%, 직장인 중 22%가 투잡(two-job)을 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 수당 지급이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일자리들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고용,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현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가운데 AI가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때문입니다.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왜 문제?

근로기준법에서 월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주휴일 연차휴가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 내 가입이 안 됩니다.(단, 고용보험만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무할 시 가입 가능) 여기에 단시간 근로의 특성인 낮은 소득, 고용불안이 합쳐져 취약한 일자리, 사각지대를 형성합니다. 저학력, 저숙련, 노인, 여성, 청소년과 청년,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들 속에서 이러한 고용 형태가 되물림·악순환됩니다. 이런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도 문제입니다. 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2018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종사자는 75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며, 이는 2003년 1.7%에 비해 매우 급증한 수치입니다. 물론 단시간 일자리 증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이런 단시간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들에 있어 단기 일자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참여와 소외거리, 여가의 보장, 적성개발이라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등 고용 편차가 심한 한국에서 단시간 일자리는 생계와 인간 존엄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낮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실직과 은퇴를 맞이한 채 단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버틸 수 없는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노동문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풍요로운 현실에서 노동은 여가나 취미,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계마저 어려운 이들에게 고단한 현실일 뿐이고,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도 합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베풀 끝으로 몰린다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작업과 기업의 이윤을 동시에 제고하기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정'(勞使政)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잘 풀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지원과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형성,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시급히 실행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노사 상호 협력과 이해, 대화를 강조합니다. 더 쏟아질지도 모를 코로나 블루(우울증) 속에서 해법의 마련을 위한 양보와 배려,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1929년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1930년대 초에 교황 비오 11세는 「새로운 사태」 40주년을 기념하며 회칙 「사십주년」을 반포하였다... 회칙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연대와 협력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 하였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협력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91항)

[가톨릭신문, 2020년 6월 21일,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대건한국학교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2021년 8월 14일~12월 11일 (16주간)
 -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 특별 과목: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일 자: 5/1-5/9 (추가등록:8/14까지)
 - 등록금: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교지\$10포함)
 - 등록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SO GOOD (Bridal & Beauty)

Duluth 매장: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9월 12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4,520

금주 납부액: \$655 누계 납부액: \$45,260 달성율: 79.3%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6명

강규상 김봉섭 박연순 박정애 성정창, 전근섭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레지오 마리아 100주년 기념 미사 및 특강 >

9월 11일 (토) 낮 12시 대성전에서 레지오 마리아 100주년 기념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구동욱 (미카엘) 본당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주일 학교 대면 수업 >

9월 12일 (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일학교 대면 수업이 있었습니다.



< 꾸리아 월례 회의 >

9월 12일(일) 오후 12시부터 소성당에서 월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 성모회 물품 판매 >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저 거울 앞에

< 루카 9,23-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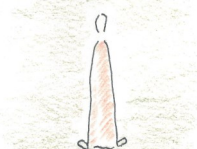
배영길 베드로 신부

저, 거울 앞에
서기 싫었어.

웬지, 보이는 모습이
힘들 것 만 같았지.

그래서, 그 앞에
서기가 두려웠어.

그래도, 늘
그 앞에
서서 확인하게 되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순교와 사랑]

순교라는 말을 올해 특히 매우 자주 들었습니다. 올해가 순교하신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고, 저희 교회가 이름에서 천명하듯 한국 순교자를 받들며, 나의 순교일지를 쓰라고 신부님이 주일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주위가 온통 순교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처럼, 이번달도 지난 달처럼, 그리고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 순교의 목소리에 에둘러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생각할 때마다 고문과 참혹한 죽음이 떠오르기 때문이며,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며, 솔직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저를 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자는 말은 찬송가의 한 구절일 뿐, 그것을 제 안에 내재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순교라는 단어를 마음속 한 칸에 묻어두고 애써 피하며 수십년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며, 제가 두려움에 물어 두었던 순교를 꺼내 놓고



오늘 복음 산책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 9,23-26 >

그 무엇보다도 먼저 순교자의 마음을 느껴보자고 묵상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죽음을 초개와 같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했을까? 왜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밝히며 끌려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도무지 공감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던 저에게 우연히 접한 성 김대건 신부님의 4대손인 대전교구 김용태 마태오 신부님의 ‘순교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은 순교자의 마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그들의 성서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느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순교하십니다. 순교자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소중히 간직했기에 고문과 참혹한 죽음은 그들에게 문제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지혜서),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기도 남습니다” (로마서) 라고 전합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 때,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죽음과 역경을 이겨내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저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기쁘고 이런저런 봉사에 힘들지 않음을 느꼈던 때는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때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제가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느낄 때 순교가 저에게도 역사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찰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묵상해 봅시다.

우리들의 정성 (2021년 9월 12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390명	
특전 미사	32명	오전 8시 30분	95명
오전 10시 30분	195명	영어 미사	68명
청소년 기금	\$ 100.00	감사헌금	\$ 120.00
교무금	\$ 4,147.00	주일헌금	\$ 3,753.00
온라인 교무금	\$ 1,300.00	온라인 주일헌금	\$ 522.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1년 9월 12일)

강규상 (9)	양재준 (9~12)
김상균 (5~12)	이광자 (9)
김세경 (7)	이국진 (9)
김영환 (9)	이남순 (9~10)
김태규 (9)	이덕환 (9)
김호수 (7~12)	이세철 (7~9)
김훈 (7~9)	이원선 (9~10)
문현준 (3~12)	임근범 (9)
박선영 (9)	임창현 (9)
배정윤 (6~10)	전근섭 (9)
성정창 (6~9)	최승원 (9)
송희빈 (8)	한성인 (9)
신승재 (9~11)	
심문영 (9)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배금례
Covid-19 Fund	-
감사헌금	박선영

알루미늄 캔 재활용 캠페인

RECYCLE FOR GOOD
(KMCC가 Novelis, Habitat for Humanity 와 함께하는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

재활용의 이익금이 Habitat for Humanity 으로 보내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건축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지구도 살리고 이웃도 돌보고!"

집한채 짓기 위해 필요한 캔의 수량 = 3,000,000캔

지붕 = 80,000캔 창문 = 5,000캔 문 = 3,000캔
정원 = 25,000캔 욕실 = 1,000캔

페인트통 = 100캔 페인트 항울 = 500캔

In partnership with Novelis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9/18 (토) 오후 7:00	고승찬	서현규 유성희	-
9/19 (일) 오전 8:30	이경환	이종길 이은경	김태훈 박재효
9/19 (일) 오전 10:30	박줄리	최창희 김선민	장재혁 소현교 장재은 남소호
9/19 (일) 오후 12:15	Gabe Choi	Chris Shin	-
9/25 (토) 오후 7:00	정영상	주태규 신경아	-
9/26 (일) 오전 8:30	이숙자	서상희 서정원	김태환 박시현
9/26 (일) 오전 10:30	박미셸	박재현 박줄리	김태훈 이하운
9/26 (일) 오후 12:15	Gabe Choi	Chris Shin	-

예수회 후원회 증강의 안내

- 9월 6일 (월) 밤 9시
송봉모 신부 - 성경 영성과 부르심
- 9월 13일 (월) 밤 9시
정제천 신부 - 순교자 영성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
- 9월 16일 (목) 밤 9시
김정택 신부 - 진정한 "나"를 찾아서
(*시간은 이곳 시간입니다.)

본당 캘린더

9월 1일 (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따른 기도의 날)
9월 5일 (일)	구동욱 신부님 취임미사
9월 11일 (토)	레지오 마리에 100주년 기념미사
9월 12일 (일)	주일학교 개학
9월 19일 (일)	본당의 날,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순교자대축일 (경축이동)
9월 19일 (일)	성김대건 성당 10주년 기념미사

◆예수회 한국 관구장 김용수(빠스칼) 신부님 미사 집전
일시: 9월 26일 (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소성당에서 역대 사목 회장님들과 관구장님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교구 2차헌금 (St. Vincent De Paul Society)이 9월 18일 (토)/19일 (일)에 있습니다.

본당의 날/한가위 상차림 예절

◆본당의 날
일시: 9월 19일 (일)
코로나상황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사는 없으나, 본당에서 교우님들을 위한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가위 상차림 예절
일시: 9월 18일 (토) 특전 미사와 9월 19일 (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미사 15분전에 상차림 예절이 있습니다.
▶연령미사 신청을 9월 17일 (금)까지 사무실과 주일 미사 때 접수를 받습니다.

2021년 조지아 꽃동네 하루 피절

주제: "행복한 가정"
일시: 9월 23일 (목) 10am ~ 3:30pm
주소: 5732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참가비: 무료 (점심 제공)
접수: 카카오톡, 텍스트, 이메일등을 활용하여 이름/세례명/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마감: 9월 22일 오후 7시
접수 및 문의:
-꽃동네집: 770-638-1385,
-cell: 770-871-9177
-이메일: gakkot@gmail.com

2021-2021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신청기간: 9/19 ~ 10/31
신청방법: 사무실 (770-455-1380) 또는 온라인 (kmccrcia@gmail.com)
수업: 11/7부터 대면 수업
문의: 나상숙 (678-933-7313)

나의 순교 일지 2021년

일시: 2021년 11월 27일 (대림 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며 '순교 영성'을 살아 가기를 초대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 1주일) 교중미사 때 '순교 일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대통령상 서비스 아워 프로젝트

목적: 주일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 및 공동체 의식 도모
참여대상: KMCC 소속 중등부 및 고등부
프로젝트:
1. 매달 넷째주 Autry Mill Nature Reserve 관리
2. Habitat for Humanity fund 모금 (알루미늄 캔 수집 및 커뮤니티 리더쉽 프로그램)
3. KMCC 환경 미화
문의: kmccga.youngadult@gmail.com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집

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모집 기간: 9월 19일 (일)까지
대상: 청년 (영어권, 한국어권)
문의: 이혁륜 (404-518-7373)

TV Donation 받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시청각교재 사용을 위한 TV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LCD/LED TV가 있으시면 아이들을 위해 기부바랍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성당사무실로 연락바라며, 9월 12일까지 기부 받습니다. 고장난 TV나 아날로그 TV는 받을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역 미사 안내

10/5 (화)	Mccumming구역 박평하 요한, 박영애 실비아택	7:30pm 404-578-7124
10/12 (화)	Sharon Springs구역 김영배 베드로, 김세희 소화테레사택	7:30pm 404-915-7185

+ 주님의 평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보살핌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월 28일,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 (5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당 교우분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핀 후, CDC의 방역수칙과 교구의 전례권고를 바탕으로 본당 미사전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 드립니다.

- ◆5월 22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부터 신체건강한 교우들은 대면 미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미사참석자는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본당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성체는 입으로도 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손영성체가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중생가합창은 계속 중지하며, 교우간의 신체접촉 또한 계속 금지합니다.

이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과 기타 고위험군(65세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느끼시는 분 등)의 교우분들은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